

한국과 일본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및 신체만족도에 관한 비교

박재경 · 남윤자 · 최경미*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동서울대학 의상디자인학과

A Comparison of Satisfaction for Actual Body and Perceived Body between Korean and Japanese Female College Students

Jae-Kyung Park · Yun-Ja Nam · Kueng-Mi Choi*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

*Dept. of Fashion Design, Dong-Seoul College

(2003. 10. 15.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Korean and Japanese female college students' body sizes, their perceptions about body size, and body satisfaction based on similar cultural background. Subjects consisted of 185 Korean students and 91 Japanese students from October to December, 2000. The age range was 18 to 28 years. We measured body sizes of subjects directly and examined by questionnaire the degree of body cathexis, perceived body size, ideal body size.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 1) Korean women had slimmer silhouette with longer arm and longer leg than Japanese, while Japanese women had more voluminous silhouette with smaller waist circumference and bigger hip circumference than Korean.
- 2) There were not differences between perception about each body size of the Korean women and Japanese women, except arm length. Especially, two groups felt themselves as greater on thigh.
- 3) There were not differences between satisfaction about body of Korean women and Japanese women, except height. Generally, two groups had lower body satisfaction on each body area, especially on thigh, lower body part, abdomen, hip, and weight.
- 4) Perception of body size had higher correlation with body satisfaction than actual body size. Lower satisfaction was related to more negative perception of body size.
- 5) Regarding ideal body size, Korean women pursued bigger height, weight, waist, and hip than Japanese. However, Japanese women pursued bigger bust than Korean. This means that Japanese women pursued more voluminous body silhouette.

Key words: Satisfaction for body, Perceived body, Ideal body, Korean and Japanese female college students; 신체만족도, 인지체형, 이상체형, 한국 · 일본 여자 대학생

I. 서 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는 실제체형과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

함께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판단하는 인지체형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갖는 이상형(理想型)과도 관련성을 갖는다. 20대 여성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신의 신체나 의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가늘고 긴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

로 인식하고, 인지체형과 실제체형 중에서 인지체형이 신체만족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용숙, 1990; 구양숙, 추태귀, 1996; 박우미, 1993; Douty and Brannon, 1984; Lennon, 1988; 植竹桃子, 1988).

또한 여성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자신의 체형이 사회적 이상체형과 차이가 많을수록 커지며(Davis, 1985), 여성의 경우 신체이미지, 신체만족도와 자기 존중감, 의복만족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 신체이미지는 영향을 받는다(Zamarin, 1976).

따라서 사회, 문화적 차이에 따라 그 사회의 이상체형에 차이가 있고, 또 이러한 이상체형이나 사회적 인 성향에 따라 스스로가 인지하는 체형이나 신체만족도 등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박우미(2000)와 남윤자, 이승희(2001)는 한국과 미국 여성의 신체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과 미국 여성 모두 추구하는 이상형이 슬림형이며, 한국 여성이 미국 여성에 비해 자신의 신체를 굵게 인지하며, 신체만족도도 매우 낮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 여성이 서구적인 체형을 이상형으로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서 사회적인 환경과 문화, 인종 등의 차이에 의해 인지체형과 신체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외에 다른 나라와 한국 여성의 신체만족도나 이상체형 등에 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나 인종이 유사한 경우에는 신체만족도나 이상체형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과 유사한 환경과 신체 조건을 가진 일본에 대해 비교함으로써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여성들의 신체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인 위치, 인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점을 갖는 일본에 대해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인지체형과 신체만족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 측정과 함께 신체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행함으로써 두 나라간의 실제체형에 기반을 둔 인지체형과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밝히고, 이상체형과의 관련도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18~28세의 여대생으로서 2000년 10월~12월에 인체측정과 설문조사를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 분포는 <표 1>과 같이 두 나라 모두 18~23세의 연령이 전체의 약 90% 정도로서 20대 초반의 연령 구성이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한국 여대생이 20.0±2.0세, 일본 여대생이 20.5±1.3세였다. 최종적으로 한국 185명, 일본 9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연령 분포

연령 (세)	한국			일본		
	빈도(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18	0	0	0	1	1.1	1.1
19	20	10.8	10.8	15	16.5	17.6
20	91	49.2	60.0	35	38.5	56.0
21	35	18.9	78.9	20	22.0	78.0
22	19	10.3	89.2	9	9.9	87.9
23	3	1.6	90.8	2	2.2	90.1
24	4	2.2	93.0	2	2.2	92.3
25	4	2.2	95.1	3	3.3	95.6
26	4	2.2	97.3	3	3.3	98.9
27	3	1.6	98.9	1	1.1	100.0
28	2	1.1	100.0	0	0	100.0
계	185	100.0		91	100.0	

2. 측정방법

실제체형은 피험자들에 대한 직접 측정을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인지체형과 신체만족도는 설문지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신체측정항목과 설문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측정항목

신체측정항목은 <표 2>와 같으며 설문은 신체크기 인식 부위 중 목길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와 대응되는 항목으로 설정되었다. 다리길이는 엉덩뼈가시점 높이와 무릎높이로 계산되었으므로 신체측정항목은 모두 20항목이었다. 측정은 마틴 인체측정기를 사용하였으며, 신체측정항목의 선정은 KS A 7003을, 측정방법은 KS A 7004를 기준으로 하였다.

2) 설문항목

설문조사 항목은 신체에 대한 부위별 크기인식, 신

체만족도 및 신체 이상치(理想值)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크기인식과 신체만족도 평가는 각각 23문항(표 4, 표 5)으로서 신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통, 팔, 다리, 목, 어깨 등의 길이 및 둘레 항목을 다양하게 선택하였다. 이상치는 두신지수, 키, 몸무게,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6항목에 대하여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자료는 SPSS/WIN 10.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신체의 직접 측정에 의한 실제체형, 신체에 대한 크기인식에 의한 인지체형, 신체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하여 기초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test를 통해 한국과 일본 여대생을 비교하였다.

<표 2> 신체측정치에 의한 실제체형의 비교

(단위: cm)

신체측정항목	한국(n=183)		일본(n=91)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	160.32	4.90	158.81	5.13	2.183*
목밑둘레	37.74	2.52	37.31	2.48	1.220
가슴둘레	83.75	5.46	81.04	5.60	3.530***
허리둘레	66.77	5.68	62.70	4.49	5.410***
배둘레	80.67	6.58	81.62	5.74	-1.063
엉덩이둘레	91.82	5.73	90.91	5.20	1.159
윗팔둘레	26.82	2.87	24.36	2.43	6.403***
아래팔둘레	21.80	1.63	21.39	1.52	1.874
손목둘레	14.97	1.07	14.32	0.90	4.536***
넓적다리둘레	54.22	4.50	50.74	4.65	5.479***
장딴지둘레	34.68	2.76	33.55	2.42	3.029**
발목최소둘레	20.94	1.16	20.65	1.14	1.820
머리수직길이	23.44	1.25	21.50	1.08	11.498***
등길이	37.23	1.96	37.55	2.13	-1.140
소매길이	53.49	3.91	51.81	2.44	3.379**
다리길이*	87.18	5.20	81.40	3.74	8.561***
어깨접너비	35.31	1.78	35.11	1.80	0.774
어깨경사각(°)	21.45	4.85	21.36	3.74	0.159
몸무게(kg)	52.58	7.36	50.69	6.64	1.877

*p<.05, **p<.01, ***p<.001

※다리길이=(엉덩뼈가시점높이-무릎높이)×0.93+무릎높이 (柳澤會子, 1982)

4. 용어의 정의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 실제체형: 직접 측정으로 측정된 신체부위별 측정치에 의한 체형.
- 인지체형: 설문을 통해 5점척도(1=작다/가늘다, 5=크다/굵다)로 측정된 부위별 크기인식에 의한 체형.
- 만족도: 설문을 통해 5점척도(1=매우불만, 5=매우만족)로 측정된 신체 부위별 만족도.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신체측정치에 의한 실제체형 비교

신체의 직접측정에서 얻어진 실제체형의 각 부위별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두 집단의 신체측정치는 키, 머리수직길이, 소매길이, 다리길이 등의 길이항목과 가슴둘레, 허리둘레, 윗팔둘레, 손목둘레,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 등의 둘레항목에서 한국 여대생이 유의하게 컸다. 유의차가 나타난 대부분의 항목이 체형을 나타내는 주요부위이기 때문에 한국 여대생이 일본 여대생보다 큰 체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배둘레, 엉덩이둘레, 아래팔둘레, 발목최소둘레, 등길이, 어깨접너비, 어깨경사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실제체형 비교(남윤자, 이승희, 2001)에서 등길이와 넓적다리둘레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비교해 보면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체형적 유사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집단의 신체 비례를 비교하기 위해 키와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한 지수치와 두신지수, 비만도를 나타내는 Rohrer Index와 BMI 등을 구하여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지수치를 비교한 결과, 키를 기준으로 한 엉덩이둘

<표 3> 실제체형의 지수치 비교

신체측정항목	한국(n=185)		일본(n=91)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cm)	160.32	4.90	158.81	5.13	2.183*
가슴둘레/키	0.523	3.49E-02	0.510	3.27E-02	2.556*
허리둘레/키	0.417	3.55E-02	0.395	2.56E-02	5.437***
배둘레/키	0.503	3.92E-02	0.514	3.49E-02	-2.036*
엉덩이둘레/키	0.573	3.43E-02	0.573	2.86E-02	0.064
윗팔둘레/키	0.167	1.81E-02	0.153	1.49E-02	5.793***
아래팔둘레/키	0.136	9.68E-02	0.135	9.12E-02	0.995
손목둘레/키	0.093	6.07E-03	0.090	5.20E-03	3.918***
넓적다리둘레/키	0.338	2.74E-02	0.320	2.94E-02	4.761***
장딴지둘레/키	0.216	1.64E-02	0.211	1.48E-02	2.237*
발목최소둘레/키	0.131	6.90E-03	0.130	7.22E-03	0.586
등길이/키	0.232	1.09E-02	0.236	1.13E-02	0.544**
소매길이/키	0.334	2.32E-02	0.326	9.65E-03	2.647**
다리길이/키	0.544	2.70E-02	0.513	1.40E-02	9.299***
어깨접너비/키	0.220	9.15E-03	0.221	8.38E-03	-0.762
가슴둘레/허리둘레	1.257	5.34E-02	1.294	4.90E-02	-4.974***
엉덩이둘레/허리둘레	1.379	6.93E-02	1.453	6.37E-02	-7.771***
두신지수	6.858	0.370	7.402	0.379	-10.474***
Rohrer Index ^{a)}	1.276	0.168	1.267	0.135	0.391
BMI ^{b)}	20.439	2.592	20.098	2.118	0.985

*p<.05, **p<.01, ***p<0.001

^{a)}Rohrer Index(RI) = 몸무게(kg)/키³(cm)×10⁵
수치: RI<1.2 정상: 1.2≤RI<1.5 비만: RI≥1.5

^{b)}BMI=몸무게(kg)/키²(m)

수치: BMI<19 정상: 19≤BMI<24 비만: BMI≥24 (정재은, 1993)

레, 아래팔둘레, 발목최소둘레, 어깨점너비의 지수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 중 배둘레와 등길이에서만 일본 여대생의 지수치가 컸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한국 여대생이 컸다. 따라서 한국 여대생이 일본 여대생보다 키에 비해 사지가 길고, 둘레항목도 큰 체형임을 알 수 있다.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한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지수치는 일본 여대생이 커서 일본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에 비해 골곡 있는 체형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밖에 두신지수는 일본 여대생이 유의하게 컸으며, Rohrer Index와 BMI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신체부위별 크기인식에 의한 인지체형의 비교

신체 각 부위에 대한 크기인식의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신체 부위별 크기인식은 한국과 일본 모두 2.56~3.99의 분포로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가슴크기, 손목굵기, 다리길이 등의 항목에서 작거나 가늘다고 인식하였으며, 한국은 손목굵기(2.58), 일본은 가슴크기(2.56)의 값이 가장 작았다. 반면, 넓적다리굵기, 엉덩이크기, 장딴지굵기, 하반신비만도 등에서는 점수가 높아 주로 하반신에 대하여 굵거나 뚱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한국과 일본 모두 넓적다리굵기(3.99)의 값이 가장 컸다.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인지체형간 비교에서는 팔길이 항목에서만 유의차가 나타나 한국 여대생이 팔길이가 더 길다고 인식하였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아 두 나라 여대생의 신체에 대한 크기인식이 매우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제체형의 많은 부위에서 유의차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보면 실제체형에서 크기에 차이가 있는 부위를 인지체형에서는 유사하게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

<표 4> 부위별 크기인식에 의한 인지체형의 비교

신체부위	한국(n=185)		일본(n=91)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	2.69	1.16	2.97	1.23	-1.732
얼굴크기	3.22	1.04	3.30	1.06	-0.507
목길이	2.82	0.88	3.03	0.77	-1.743
목굵기	2.96	0.82	2.96	0.80	-0.009
어깨너비	3.26	1.11	3.23	1.07	0.258
어깨각도	2.77	0.87	2.96	1.14	-1.243
가슴크기	2.65	1.17	2.56	1.16	0.512
허리굵기	3.28	1.06	3.45	0.87	-1.292
아래배둘레	2.80	1.04	2.76	1.02	0.274
엉덩이크기	3.72	0.97	3.90	0.78	-1.532
위팔굵기	3.63	1.10	3.59	1.04	0.257
아래팔굵기	3.03	1.05	2.97	1.03	0.418
손목굵기	2.58	1.16	2.80	1.18	-1.381
넓적다리굵기	3.99	0.98	3.99	0.84	0.067
장딴지굵기	3.65	1.10	3.70	1.01	-0.369
발목굵기	3.08	1.14	3.30	1.09	-1.396
등길이	3.14	0.71	3.20	0.68	-0.688
팔길이	3.28	0.87	2.96	1.02	2.539*
다리길이	2.74	0.91	2.56	0.84	1.396
몸무게	3.39	1.03	3.48	0.95	-0.621
전신비만도	3.27	0.93	3.34	0.86	-0.531
상반신비만도	3.08	1.02	3.08	0.94	-0.063
하반신비만도	3.70	0.96	3.73	0.86	-0.227

* $p \leq .05$

하며, 이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크기를 인식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신체부위별 만족도의 비교

1) 신체부위별 만족도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일본 여대생(1.77~3.39)이 한국 여대생(1.64~3.23)보다 낮았으나, 키에서만 유의차가 나타나 한국(2.34)보다 일본 여대생(2.79)이 키에 더 만족하였다.

만족도 점수가 2점 이하로 불만을 갖는 항목은 한국 여대생은 넓적다리굵기(1.64), 하반신비만도의 2항목이었으며, 일본 여대생은 넓적다리굵기(1.77), 아래배돌출, 하반신비만도, 엉덩이크기, 장딴지굵기의 5항목이었다. 따라서 두 나라 모두 하체의 굵기와 비

만과 관련된 항목에서 불만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대로 만족도 점수가 3점 이상의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항목은 한국 여대생은 손목굵기, 팔길이, 목굵기의 3항목, 일본 여대생은 목굵기, 목길이, 손목굵기, 팔길이의 4항목이었다. 이들 항목은 비만과 비교적 관련이 적은 항목들이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한국의 목굵기(3.23)나 일본의 손목굵기(3.39)에서도 만족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어 두 나라의 여대생 모두 자신의 신체에 대체로 만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 신체부위별 만족도와 실제체형 및 인지체형간의 상관
신체 각 부위별 만족도와 이에 대응되는 실제체형, 인지체형과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얼굴크기, 등길이를 제외한 키, 목길이, 팔길이, 다리길이 등의 길이항목에서는 만족도와 체형간에 정적상관을 나타내 대부분의 길이항목에서는 크거나

<표 5> 부위별 신체만족도의 비교

신체부위	한국(n=185)		일본(n=91)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	2.34	1.27	2.79	1.25	-2.544*
얼굴크기	2.46	1.28	2.50	1.30	-0.225
목길이	2.94	1.22	3.19	1.07	-1.484
목굵기	3.05	1.16	3.23	0.98	-1.153
어깨너비	2.73	1.24	2.80	0.97	-0.505
어깨각도	2.85	0.97	2.66	0.96	1.399
가슴크기	2.49	1.10	2.43	1.10	0.376
허리굵기	2.36	1.21	2.09	1.05	1.779
아래배돌출	2.03	1.07	1.79	0.95	1.696
엉덩이크기	2.08	1.04	1.93	0.94	1.071
위팔굵기	2.25	1.23	2.17	1.12	0.513
아래팔굵기	2.85	1.23	2.68	1.08	0.995
손목굵기	3.39	1.25	3.09	1.16	1.820
넓적다리굵기	1.77	0.99	1.64	0.89	0.926
장딴지굵기	2.09	1.12	1.93	1.04	1.021
발목굵기	2.64	1.19	2.59	1.22	0.309
등길이	2.75	0.91	2.90	0.95	-1.190
팔길이	3.25	1.10	3.00	1.09	1.592
다리길이	2.29	1.15	2.13	1.12	1.019
몸무게	2.16	1.19	2.09	0.93	0.502
전신비만도	2.21	1.00	2.35	1.04	-0.998
상반신비만도	2.41	1.21	2.57	1.11	-0.968
하반신비만도	1.86	0.97	1.90	0.89	-0.310

*p≤.05

<표 6> 신체부위별 만족도와 인지체형 및 실제체형과의 상관

신체부위	한국(n=185)		일본(n=91)		대응 신체측정항목
	인지체형과의 상관	실제체형과의 상관	인지체형과의 상관	실제체형과의 상관	
키	0.723***	0.653***	0.544***	0.544***	키
얼굴크기	-0.698***	-	-0.736***	-	-
목길이	0.638***	-	0.502***	-	-
목굵기	-0.611***	-	-0.446***	-	-
어깨너비	-0.650***	-0.356**	-0.149	-0.035	어깨접너비
어깨각도	-0.020	0.083	0.026	0.030	어깨경사각
가슴크기	0.324***	-0.040	0.639***	0.371**	가슴둘레
허리굵기	-0.782***	-0.540***	-0.589***	-0.343**	허리둘레
아래배둘레	-0.672***	-0.306***	-0.590***	-0.107	배둘레
엉덩이크기	-0.578***	-0.427**	-0.612***	-0.328**	엉덩이둘레
위팔굵기	-0.783***	-0.487***	-0.692***	-0.335**	위팔둘레
아래팔굵기	-0.660***	-0.478***	-0.544***	-0.379**	아래팔둘레
손목굵기	-0.771***	-0.327**	-0.638***	-0.338**	손목둘레
넓적다리굵기	-0.719***	-0.478***	-0.618***	-0.156	넓적다리둘레
장판지굵기	-0.689***	-0.449***	-0.704***	-0.223	장판지둘레
발목굵기	-0.687***	-0.465***	-0.707***	-0.285*	발목최소둘레
등길이	-0.385***	-0.286***	-0.048	0.237*	등길이
팔길이	0.364***	0.118	0.563***	0.226	소매길이
다리길이	0.749***	0.319***	0.515***	0.361**	다리길이
몸무게	-0.672***	-0.515***	-0.658***	-0.372**	몸무게
전신비만도	-0.446***	-0.360***	-0.610***	-0.435***	Röhrer Index
전신비만도	-0.446***	-0.359***	-0.607***	-0.462***	BMI
상반신비만도	-0.548***	-	-0.628***	-	-
하반신비만도	-0.623***	-	-0.632***	-	-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길수록 만족하였다. 또한 가슴크기를 제외한 허리굵기, 엉덩이크기, 넓적다리굵기, 전신비만도 등의 모든 굵기나 비만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만족도와 부적상관을 나타내 굵기와 비만항목에서는 가늘고, 마른 것에 만족하나 가슴크기는 클수록 만족하였다. 그러나 가슴크기에서 한국의 상관계수가 일본에 비해 매우 낮고, 실제 가슴둘레 치수와의 상관은 -0.040으로 매우 낮는데, 이는 한국 여대생이 가슴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 모두에 불만족하기 때문으로서 일본 여대생의 클수록 만족하는 경향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만족도와 체형간의 정적, 부적상관의 경향은 한국과 일본 모두 일치하였으며, 대부분의 부위에서 실제체형보다 인지체형과 만족도간의 상관계수가 크게 나타나 실제체형보다 인지체형이 신체만족도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넓적다리둘레, 아래배둘레와 같이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서 인지체형과의 상관계수가 더욱 컸다.

4. 신체 이상치의 비교

신체부위별 이상치의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정 결과는 <표 7>과 같다.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신체적 이상치를 비교한 결과 키, 몸무게,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에서 한국의 이상치가 유의하게 컸다. 이는 앞서 실제체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던 부위가 인지체형에서는 차이가 인지되지 않았던 이유로 크기를 인식하는 기준의 차이를 들었는데, 이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상적인 신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여대생이 일본 여대생보다 실제 키는 더 크면서도 만족도는 낮았던

<표 7> 신체부위별 이상치의 비교

항목	한국(n=185)		일본(n=91)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두신지수	7.66	0.63	7.70	0.55	-0.458
키(cm)	167.58	2.86	162.69	3.72	9.944***
몸무게(kg)	49.09	2.99	47.06	2.98	4.843***
가슴둘레(cm)	84.29	5.69	84.75	3.44	-0.616
허리둘레(cm)	62.53	4.32	58.94	2.47	7.974***
엉덩이둘레(cm)	87.45	5.02	84.45	5.26	4.008***

*** $p < .001$

것은 키의 이상치가 일본보다 더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신지수는 두 나라 모두에서 7.6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서구적인 8등신의 체형을 이상형으로 하였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만 정도는 키와 몸무게의 이상치를 이용하여 비만지수를 구해본 결과, Rohrer Index의 경우 한국은 1.0, 일본은 1.1이 되어 1.2미만을 수척형으로 하는 Rohrer Index의 기준보다 낮았다. BMI 역시 한국이 17.8, 일본이 17.5로서 19미만을 수척형으로 하는 BMI의 기준보다 낮아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마른 체형을 이상형으로 하였다. 몸통부위 체형의 경우, 가슴둘레에는 차이가 없고,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한국 여대생이 유의하게 컸다. 따라서 일본 여대생은 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가슴둘레를 이상형으로 하여 말랐지만 볼륨감 있는 몸매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 측정과 함께 신체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두 나라간의 실제체형에 기반을 둔 인지체형과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밝히고, 이상체형과의 관련도 고찰하였다.

실제체형의 경우 한국 여대생이 일본 여대생보다 대부분의 부위에서 큰 수치를 나타냈으며, 지수치 비교 결과 한국 여대생은 팔, 다리가 길고, 뭉뚱한 체형인데 반해, 일본여대생은 허리가 가늘고 엉덩이크기가 큰 굴곡 있는 체형의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인지체형의 경우 팔길이에에서만 유의차가 나타나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신체에 대한 크기인식은 거의 유사하였으며, 넓적다리굵기를 가장 굵게 인

식하였다.

또한 신체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키에서만 유의차가 나타나 한국 여대생보다 일본 여대생이 키에 더 만족하였다. 두 나라 모두 대부분의 신체 부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하체의 굵기와 비만관련항목에서 불만족하였다. 또한 실제체형보다 인지체형이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도가 낮은 부위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였다.

각 나라별 이상체형은 한국 여대생이 키가 크고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반면, 일본 여대생의 경우 키는 한국 여대생의 이상치 보다 작고, 말랐지만 볼륨감 있는 몸매를 선호하였다.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실제체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는 항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체형과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두 나라의 여대생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신체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사한 환경과 문화를 배경으로 한 국가간에서도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이상체형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며 이러한 이상체형이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여대생의 신체만족도와 선호하는 체형을 명확히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일본과 관련된 의류의 수출입시 의류의 치수 설정이나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적절히 사용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한국과 일본의 두세 개 대학에서 표집된 자료이고 연령분포 또한 20대 초반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에 적용시키는 데는 제한점을 갖으며, 실제 의복 디자인 개발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신체만족도나 이상체형과 관련하여 유행

되고 있는 의복과 실제 입혀지고 있는 의복 스타일의 차이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구양숙, 추태귀. (1996).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29-39.
- 김용숙. (1990). 전북지역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유행지향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177-189.
- 남윤자, 이승희. (2001).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4), 764-772.
- 박우미. (1993). 우리 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 박우미. (2000).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5), 736-747.
- 정재은. (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 Davis, L. L. (1985). Perceived somatotype, body cathexis, and attitude toward clothing among college females. *Perceptual and Motor Skill*, 61(3), 1199-1205.
- Douty, H. I., & Brannon, E. L. (1984). Figure attractiveness: Male and female preference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122-137.
- Lennon, S. J. (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3), 196-203.
- 植竹桃子. (1988). 衣服設計の立場からみた肥り瘠せの意識. *日本家政學會誌*, 39(7), 711-723.
- 柳澤會子. (1982). 被服體型學. 光生堂.